

## 중국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일 시 : 2018. 05. 30.(수), 10:00

장 소 :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



## 제31회 충청중국포럼

- ◆ ‘충청중국포럼’은 2015년 5월 출범 이후 충남도와 시, 군 중국교류 관련업무 담당자의 주도적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와 교류의 장으로 개최, 운영되어 왔음
- ◆ 이번 제31회 충청중국포럼에서는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가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 ◆ 이번 포럼을 통해 중국 내에서 이뤄진 주요 항일운동을 살펴보고 이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 행사개요

- 주 제 : 중국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 일 시 : 2018. 05. 30.(수) 10:00 ~ 12:00
- 장 소 :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
- 연 사 : 박경철 박사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 참 석 :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중국교류업무 담당자, 그 밖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 행사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05	Ⅵ 개 회	사회: 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Ⅵ 인사말씀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10:05~11:35	Ⅵ 발제 · 중국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1:35~11:50	Ⅵ 토론	엄청나 ((사)매현윤봉길월진회 전 사무국장)
11:50~12:00	Ⅵ 종합토론 · 발표자, 참석자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12:00	Ⅵ 폐 회	

## ■ 박경철 박사 프로필

□ 소속 및 직위: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장  
(농촌농업연구부 겸직)

### □ 학 력

- 건국대학교 농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사회개발학(석사, 박사수료)
- 베이징대학 사회학과(박사)

### □ 경 력

- 1995.7-1997.7: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중국, 농업 분야)
- 1999.1-2000.1: 국제농업개발원(월간 상업농경영 기자)
- 2003.2-2007.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연구원, 전문연구원)
- 2012.11.1-현재: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미래전략연구단
- 2014.4-2016.3: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 2015.1-현재: 한국농촌사회학회 총무이사, 국제이사

### □ 논문 및 저서

- 포스트사회주의 이후 중국 합작사(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중국 산둥성 평라이시(蓬萊市) 포도주생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중국학회>, 제12집 2호(2013)
- 중국의 재발견(공저), 차이나하우스(2011)
- 중국대륙에서 부르는 타이항산 아리랑(공저), 차이나하우스(2013)
- 이화림 회고록(공역), 차이나하우스(2015)





## 중국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박경철 박사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한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을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제31회  
충청중국포럼

# 중국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박경철 박사**

- **소속 및 직위**
  -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중국연구팀장 (충남농업연구소 겸직)
- **학력**
  - 건국대학교 농학박사(학사)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자연사회과학대학(석사, 박사수료)
  - 베이징대학교 사회학박사(학사)
- **경력**
  - 1995. 7~1997. 7: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중국, 농업 분야)
  - 1999.1~2000.1: 국제농업개발원(일본) 산업농경정 기사
  - 2002.2~2007.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본부연구관, 전문연구관
  - 2010.11.1~현재: 충남연구원을 농촌농업연구부, 미래전략연구부
  - 2014.4~2016.3: 충남도 남북교류협력지원회 위원
  - 2015.1~현재: 한국농촌사회학회 총무이사, 국제이사
- **논문 및 저서**
  - 포스트식량주의 이후 중국 학자(합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중국 신농성 평라이시(龍海市)포도주생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농학박회》, 제1집 2호(2013)
  - 중국의 재발견(공저), 차이나하우스(2011)
  - 중국대학에서 부르는 타이완산 미라클(공저), 차이나하우스(2013)
  - 이화원 최고책(공역), 차이나하우스(2015)

**일시**

**장소**

**2018년 5월 30일 (수) 10:00~12:00**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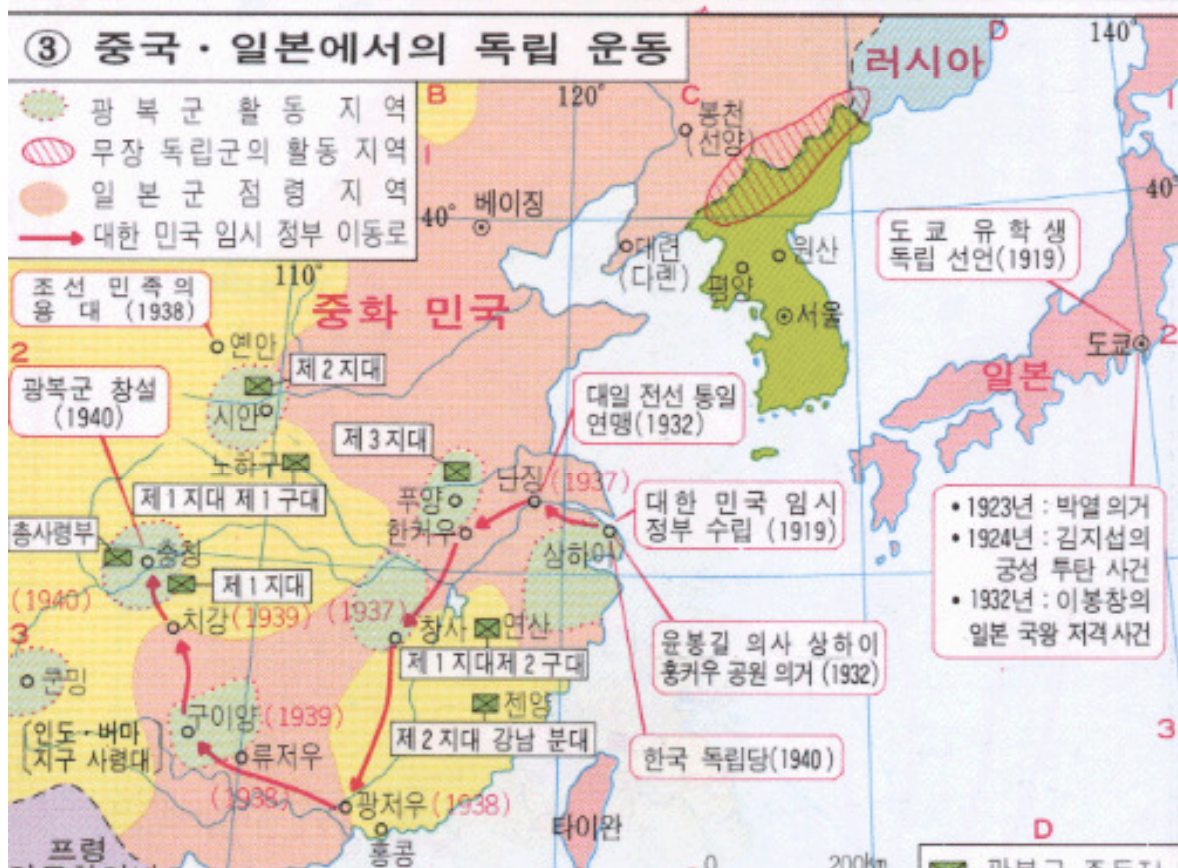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문의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중국연구팀 041-840-1175



출처: 구글 이미지

# 대륙을 휘젓던 항일여성 독립영웅가들



**제1강 5/18(목)**  
**모스크바의 붉은 별, 주세죽 (1901~1953)**  
강사 **손철중**  
<크레메린의 눈물>, <박헌영 트라우마> 등 저자,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제2강 5/25(목)**  
**의열단에서 조선의용대로의 험한 전진, 박차정 (1910~1944)**  
강사 **안대성**  
<경성 프로이거>, <박헌영 평전>, <잃어버린 한국현대사> 등 저자, 저자  
소설가



**제3강 6/1(목)**  
**한국 최초의 볼셰비키 혁명가, 김 알렉산드라 (1885~1918)**  
강사 **정철중**  
<소련 김 알렉산드라> 저자  
사단, 韓 獨逸로 문화부장, 러시아 북일 최프아가메이 역사학과 박사



**제4강 6/8(목)**  
**태항산의 백마 탄 여장군, 김명시 (1907~1949)**  
강사 **한홍구**  
<여름 이 순간의 역사>, <대한민국사> 등 저자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경희대학교 전일추진위원회 상임이사



**제5강 6/15(목)**  
**1932년 상해 홍커우 의거의 숨은 기획자, 이화림 (1905~1999)**  
강사 **박정철**  
<이화림 회고록> <중국 대륙에서 부르는 태항산 아리랑> 저자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북경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제6강 6/22(목)**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조선의 클론타이, 허정숙 (1908~1991)**  
강사 **신영숙**  
<여성의 역사를 노래하다> 저자  
(사)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기획위원장, 근대여성사 연구자

- 일 시 : 2017.5.18 ~ 6.22 6주강좌 매주(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서대문구 통일로 251길 독립관 지하 1층 (독립문공원)
- 참가비 : 무료 (선착순 접수 50~60명)
- 사전전화 신청접수 : 02-924-0660 010-2937-7138



대갓집 마님에서 신여성까지,  
일제와 맞서 싸운 24인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

장운현 지음

**‘유관순 누나’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바치는 책!**

인문서원

## 남자현, 이화림, 안옥윤, 연계순...



**남자현 지사**  
(1872. 12. 7 - 1933. 8. 22)



**이화림 지사**  
(1905. 1. 5 - 1999. 2. 10)



여성독립운동가 292명(보훈처)  
전체 국가유공자의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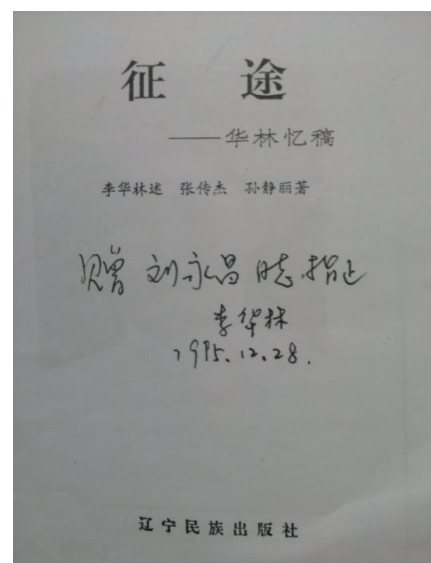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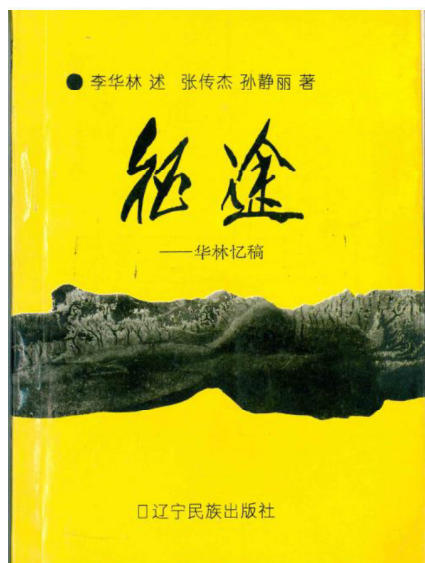


EBS 광복 60주년기념  
<도올이 본 한국독립운동사>  
제7편 <십자령에 뿌린 의혈>





조선의용대 윤세주 열사 후손 윤명화, 윤명숙 할머니(오른쪽)  
김원봉 선생의 막내 동생 김학봉 할머니(왼쪽)



이화림의 회고록 『征途』의 표지(좌)와 증정본의 친필 서명(우)

... 이화림 여사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먼저, 그녀가 걸어온 길에 감동했고 감격했다. 나도 깊은 배움을 얻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글을 썼다. 심지어 어떤 단락에서는 눈물로 쓰기도 했다.

나는 회고록의 형식으로 그녀의 일생을 쓸 수가 없었다. 왜냐면, 그녀가 걸어온 길이 독립의 길이요, 조선 인민이 민족해방과 국가독립을 쟁취하는 고난의 역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족적은 바로 조선독립운동의 진실한 역사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또한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교육을 가르치는 데 우수한 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나는 역사유물주의의 시각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그녀의 일생을 새롭게 썼다. **책 내용 중에는 극히 일부의 허구의 문학적 묘사만 제외하면 과장적 낭만주의 색채는 거의 없다.** 책에서는 이화림 여사와 조선독립을 위해 분투한 애국지사들의 눈부셨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에서 “8.15해방”까지 찬란했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사실대로 재현하고자 했다...

< 『征途』 저자 장찬제 후기 중에서 >





## 중국 망명 전의 이화림 여사

- 본명 이춘실(李春實)
- 1905년 1월 5일 평양시 경창리의 가난한 서민의 집에서 출생
- 아버지 이지봉, 어머니 김인봉, 큰오빠 이춘성, 이춘식 그리고 언니 한 명. **오빠 두 분도 중국에서 독립운동**
- 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송현소학교, 중학교에서 육아교육을 공부**하고 군산시, 청진시 소재 유아원에서 근무
- 평양 수학 시 **3.1혁명에 적극 가담**하고 역사문학 연구회에서 활동

## 상하이에서의 활동들



1930년 상하이로 망명해 김두봉 선생의 소개로 백범(白凡) 김구 선생을 만나 한인애국단원에 가입  
(사진은 1932년 무렵)





일본천황을 저격하러 떠 나기 전  
태극기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이봉창 의사



상하이 홍콩공원 폭탄투척 전  
태극기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거사에 조력함



## 광저우에서의 활동들

- 윤봉길 의사 폭탄투척 후 독립운동이 소강 상태에 빠지자 광저우에 가서 그곳의 **중산 대학 간호사 과정에 입학**. **진광화 등과 교류**
- 중산대학 유학생인 **김창국(金昌國)**을 만나 **결혼해 아들 김우성(金雨星)을 낳음**.
-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 청년당원 모집을 위해 광저우에 온 **의열단 출신 윤세주의 연설을 듣고 감동 받아 가족과 헤어져 이듬해 1월 남경에 가 부녀국 의료보건을 책임**



◀ 의열단,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의 리더 윤세주 열사  
(1900. 6. 24 - 1942. 6. 2)

### 조선의열단

1919년 11월 김원봉 등 13인의 조선인이 만주 길림시에서 조직한 항일무력독립운동단체

### 조선민족혁명당

1935년 남경에서 조직된 항일독립운동단체. 1932년 11월 김원봉의 의열단을 중심으로 김두봉의 조선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한국광복동지회 등 5개 단체가 연합해 결성. 지청천, 이범석, 김규식 등이 참여



### 중산대학(中山大學)

손문 선생이 1924년에 설립. 귀모뤄, 루쉰, 펑여우란 등이 교수로 근무함. 화남지역 최고의 대학



광저우기의열사능원 내 중조인민혈의정과 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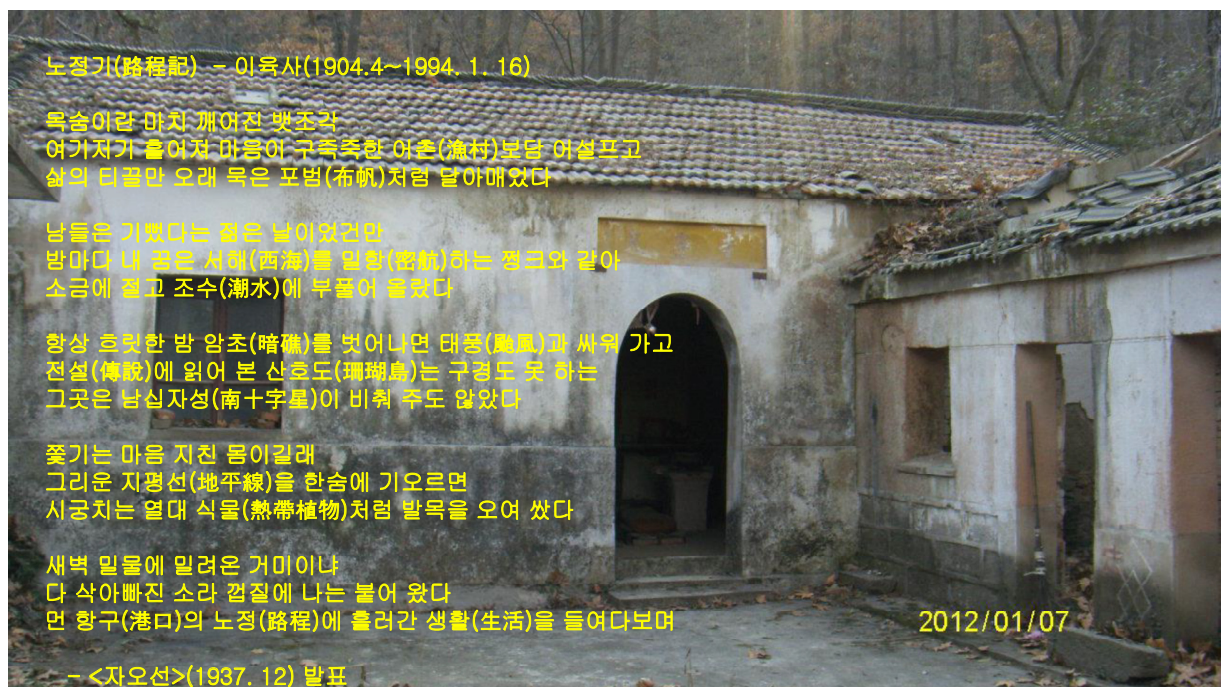
## 남경에서의 활동들

- 조선민족혁명당 부녀국 의료보건사업 책임
- 임철애(박차정 여사: 김원봉 선생의 부인) 등과 선전활동 전개
- 윤세주, 이춘암 등의 소개로 이집중(李集中, 본명 李鐘熙) 동지를 만나 재혼했으나 성격 차이로 곧 결별
- 조선민족혁명당에서 조선혁명간부학교(교장 김원봉)를 세워 우수한 조선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정치, 군사교육을 실시(윤세주, 이육사, 정율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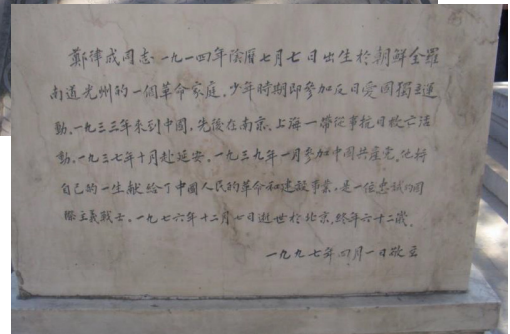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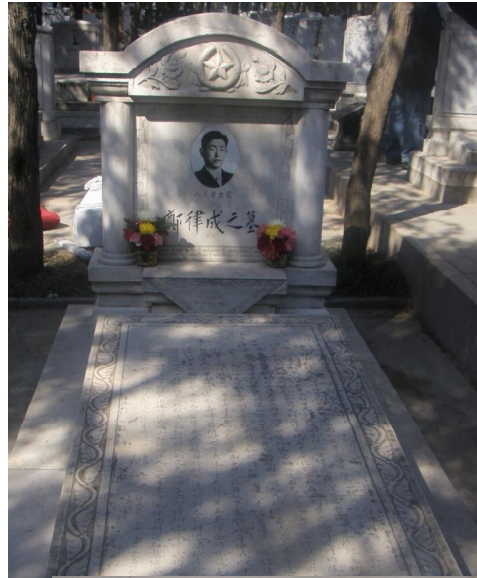
남경 근교의 폐찰 천녕사(天寧寺)  
조선청년혁명간부학교가 있었던 곳임.







▲ 2012년 1월 15일 KBS 1TV '13억 대륙을 흔든다, 음악가 정율성' ©KBS



북경 팔보산 혁명 공묘 내 정율선 선생 묘

## 무한, 중경, 계림에서의 활동들

- 남경대학살 이후 일본의 내륙 침략으로 이화림 여사는 조선민족혁명당원들과 함께 1938년 중경으로 옮겨 활동
- 1938년 10월 10일 무한에서 조선의용대 창립
- 1939년에는 계림으로 가 조선의용대 여자복무단 부대장으로 활동
- 이후 무한을 거쳐 1941년 화북 태항산(太行山) 지구 팔로군 항일근거지로 이동해 항일활동 전개



### 조선의용대 창설 (1938년 10월 10일 우한)

조선민족전선 이사, 조선민족혁명당 총서기 김원봉이 장개석과 협상해 창립.

중국공산당의 지원뿐만 아니라 당시 국민정부군사위원회 정치부 부부장 주은래와 정치부 제3청청장 곽말약이 적극 지원







1938년 중경(重慶)시기의  
이화림 여사



1939년 광서(廣西) 계림(桂林) 조선의용대  
활동 당시의 이화림 여사(가운데)



계림시기의 여성의용대원



1939년 계림(桂林) 조선의용대 창립1주년 기념사진

## 태항산지구, 연안에서의 활동들

- 1941년 중국 화북 태항산 항일근거지 도착
- 1942년 3월 화북조선인민간부훈련반 입학  
졸업 후 조선혁명청년학교(교장 무정) 지원
- 1943년 봄부터 조선의용군 병원에서 근무
- 1944년 연안으로 들어가 화북조선독립동맹 주석  
김두봉 휘하에서 활동
- 1945년 1월 무정의 권유로 연안 중국의과대학 입학
- 1945년 연안에서 해방 맞음. 졸업 후 연변의학원에  
배치됨

도올이 본 독립운동사 7부 십자령에 뿌린 의혈(義血)

-독립을 향한 고귀한 희생 조선의용대



<십자령에 뿌린 의혈> 시청(약 15분)







조선의용군 최초 주둔지인 상무촌의 옛 홍복사 사찰터  
이곳에서 조선의용군 2명이 일본군에 의해 피격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할아버지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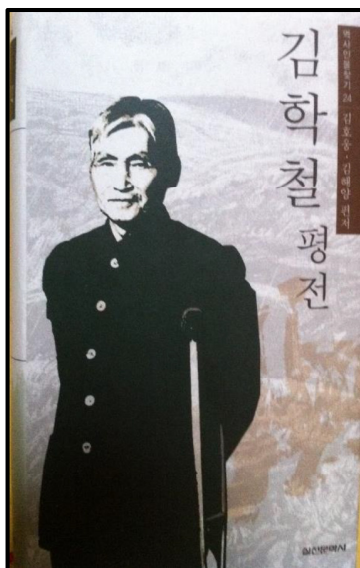


상무촌 마을 뒤를 병풍처럼 웅장한 바위산. 이 산의 중턱에는 조선의용군  
무명용사 무덤이 있다. 마을사람들은 매해 한식(청명) 때 이곳을 찾아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참 고마우신 분들이시다.





1941년 12월 12일에 발생한 호가장(胡家庄) 전투지. 조선의용대 20여명과 일본군 300여 명이 전투를 벌려 조선의용대 4명이 희생되고 수 명이 부상을 입음.



김학철 [金學鐵, 1916~2001.9.25], 함남 원산  
본명 홍성걸, 조선의용대 마지막 분대장  
척각(隻脚)의 투사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 독립운동가로  
광복 후에는 소설가로 활동한 중국 연변의 조선족 작가.  
1950년 중국으로 망명 후 작품 창작에 전념 중 필화사  
건에 연루됨.

가장 오래 살아남은 조선의용대 분대장이었으며 주요  
작품으로 《격정시대》 등이 있음.

“편안하게 살려거든 불의에 외면을 하라!  
그러나 사람답게 살려거든 그에 도전을 하라!”

— 김학철 선생의 유언 —





호가장 전투에서 희생된 4분의 의용대원 묘지(黃北 坪村):  
박철동(30세), 손일봉(29세), 이정순(왕현순, 24세), 최철호(한청도, 26세)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  
연맹 회원들과 함께 참배  
<2016년 7월 13일>







마전 팔로군 총사령부 앞 풍경. 예전에는 麻를 많이 심어 마전이었던 것 같다. 지금은 옥수수가 빼곡히 심겨져 있다. 그 앞에는 병풍처럼 바위가 둘러싸여져 있다.

마전 팔로군 총사령부



십자령 정상과 좌권 장군




십자령에서 희생된 팔로군 부참모장 좌권(左權)장군

윤세주 열사, 진광화 열사는 일제에 의해 장자령에서 희생됨(아래)






▲ 팔로군과 연합해 일제의 소탕작전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조선의용군



**石正 尹世冑 烈士**  
석정 윤세주 열사 | 1901-1942

原名尹世冑，又名尹小龙、石鼎。韩国庆尚南道密阳人，1901年6月24日生。1919年朝鲜3.1独立运动后，在中国吉林组织“义烈团”，因策划刺杀朝鲜总督而被捕入狱7年。出狱后流亡中国。1935年参与组建朝鲜民族革命党，任中央委员、中央执行委员等职，被称为“朝鲜民族革命党之灵魂”。是朝鲜义勇军建军的核心成员。1942年5月28日，在反扫荡作战中牺牲于河北省涉县庄子岭。时年42岁。1982年被授予大韩民国建国功劳勋章、独立章。

경상남도 밀양사람으로 1901년 6월 24일에 태어났다. 1919년 3·1 독립운동 후, 중국 길림에서 의열단을 조직했으나 조선총독부 폭파를 계획한 혐의로 체포되어 7년 동안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후 중국으로 망명했다. 1935년 민족혁명당을 조직하고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등의 직책을 맡아 “조선민족혁명당의 영혼(중심)”이라고 불리며, 조선의용대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1942년 5월 28일 태항산 반소망 작전에서, 하베이성 심원 경작명에서 42세로 순국하였다. 198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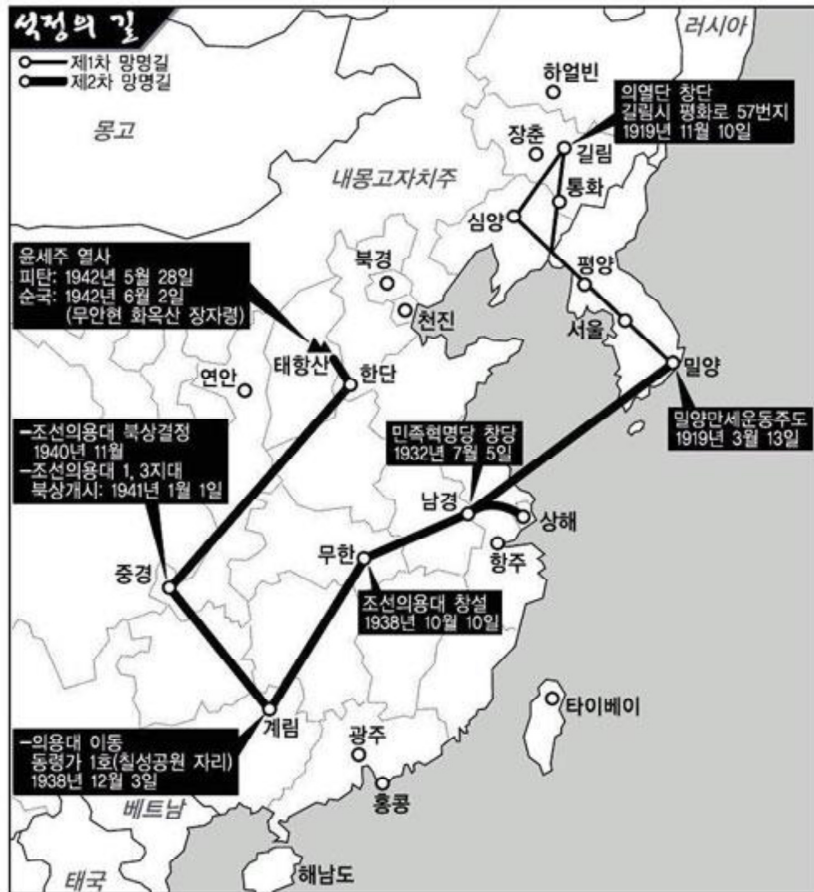
**陈光华 烈士**  
진광화 열사 | 1911-1942

朝鲜平安南道大同郡人，原名金昌华，1911年生。1931年流亡中国，1936年加入中国共产党。1937年毕业于广州中山大学教育系。1938年抵达太行山抗日根据地，任中共晋冀鲁豫党校副校长、华北朝鲜青年联合会晋冀鲁豫支会会长、朝鲜义勇军华北支队指导员。1942年5月28日，在太行山反扫荡作战中牺牲，时年31岁。1993年被授予大韩民国建国功劳勋章、爱国章。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으로 1911년에 태어났다. 1931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1936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했다. 1937년 중산대학을 졸업한 후 1938년 태항산 항일근거지로 들어와 중공 진기로에 당교 부교장, 화북조선청년연합회 회장,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지도원으로 활동하였다. 1942년 5월 28일 태항산 반소망 작전을 31세로 순국하였다. 1993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석정 윤세주 열사(우), 진광화 열사의 묘지(좌)  
(이후 1950년 10월 허베이성 한단시 혁명열사릉으로 이장함)





석정 윤세주 열사의  
항일투쟁의 길  
(자료: 경남도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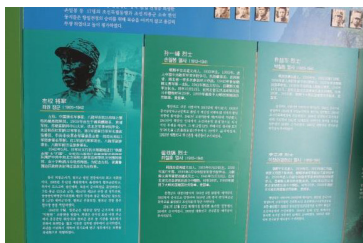


석정 윤세주 열사, 진광화 열사  
그리고 이역만리 중국에서 산화한 수많은 무명 열사들께 참배를 올렸다.





##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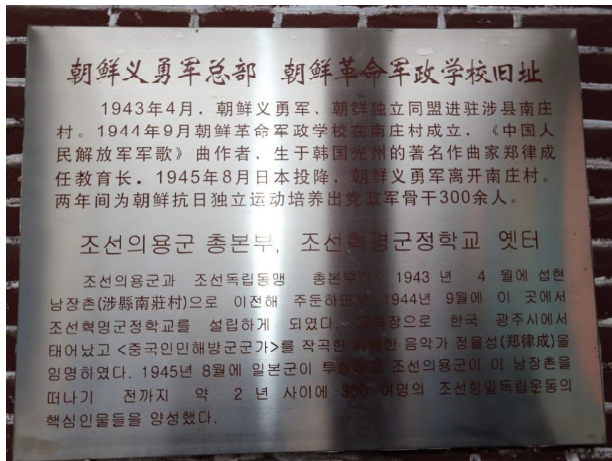
1942년, 타이항산 팔로군 항일근거지에서 반소탕전투 중 부상을 입은 대원을 응급처치해 주고 있는 이화림 여사



중원촌(中原村), 1942년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화북조선조선독립동맹(김두봉)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개칭한 곳. 마을 아이들이 태권도를 단련하고 있다.







**남장촌 조선의용군총부와 조선  
혁명군정학교 안내표지**  
1944년 9월에 설립된 이곳은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조선의용  
군 약 300명을 교육했던 곳



**조선혁명군정학교에 대해  
설명하시는 한단시 역사문  
화연구소 상영생 선생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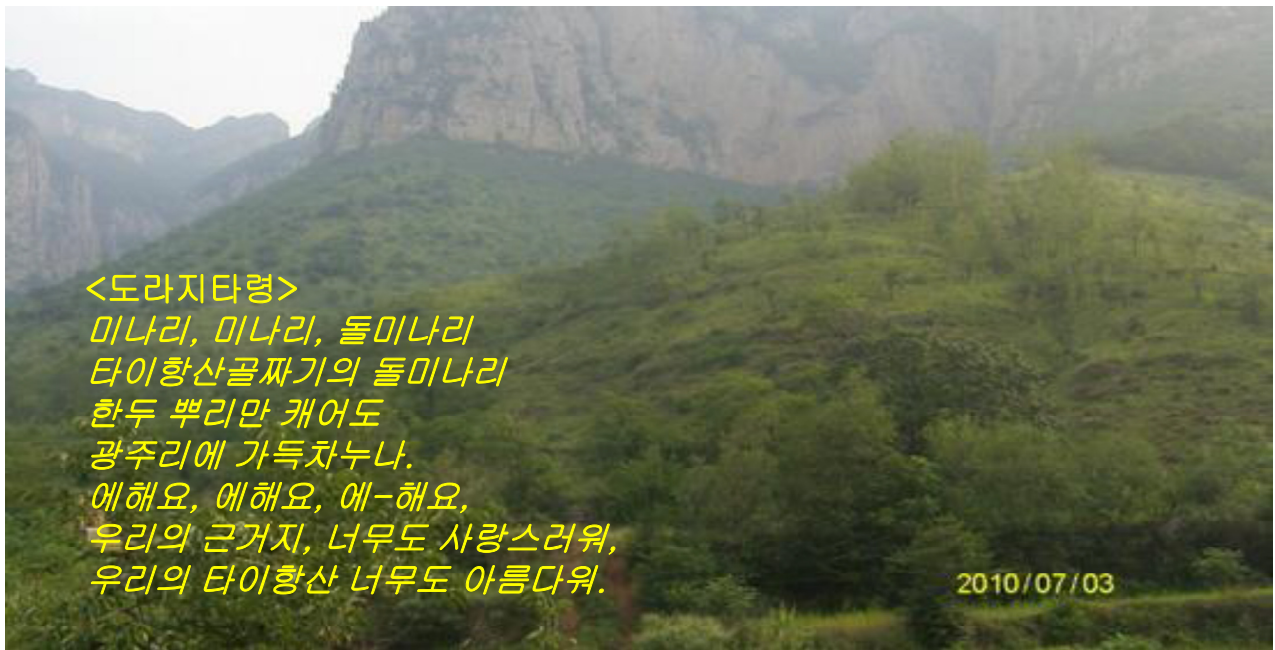


**섭현 남장촌 오지산 자락의  
조선의용군 생활기지 앞에서**

**조선의용대 오빠들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시는 정교전  
할머니와 함께**







<도라지타령>  
 미나리, 미나리, 돌미나리  
 타이항산골짜기의 돌미나리  
 한두 뿌리만 캐어도  
 광주리에 가득차누나.  
 에해요, 에해요, 에-해요,  
 우리의 근거지, 너무도 사랑스러워,  
 우리의 타이항산 너무도 아름다워.

2010/07/03

조선의용군이 농사를 지었던 남장촌 오지산(五指山) 자락



무정 장군과 조선의용군이 마지막으로 거쳐했던 雲頭底村의 건물과 당산나무.  
 이 나무는 우리 조선의 의용군들을 기억하고 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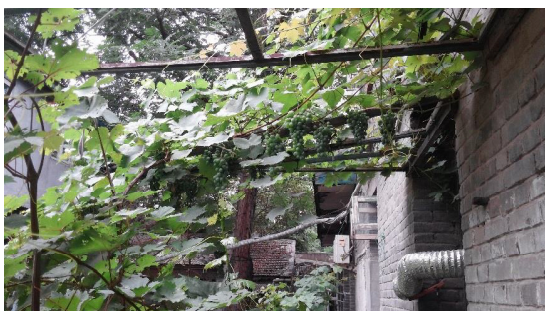
조선의용군은 퇴각하면서 마을 입구 문루에 일본군내 조선인을 향해 "왜놈의 上官놈을 싸 죽이고 총을 메고 조선의용군을 찾아오시오"라고 쓴 선전문구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석정 윤세주, 진광화 열사님께 묵념과 헌화  
(한단시 진기로에 열사능원)



이육사 의사(1904.4.4-1944.1.16) 순국 장소  
(베이징 소재, 구 일본군 헌병사령부 구치소)

# 해방이후의 활동들

-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인민해방군의 지시로 이화림 여사는 조선인민군 제6군단 위생소 소장으로 복무
- 하지만 의료복무 중 미군의 폭격에 부상을 입어 요녕성 심양으로 복귀한 이후 다시는 조국으로 못 돌아감
- 이후 중국에 남아 심양의사학교 부교장, 중공고급당교 수학, 중국 교통부 위생기술과 간부, 연변조선족자치주 위생국 부국장과 주의 당대표 역임
- 문화대혁명 때 반혁명분자로 몰려 근 10년의 고초를 겪음, 그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복권 이후 대련으로 옮겨 요양
- 대련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다가 1999년 2월 10일 향년 95세로 머나먼 항일투쟁의 길을 마감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이화림 여사. 그녀는 당시 조선인민군 제6군단 전선(前線) 위생소 소장 역임



1955년 9월에서 1956년 7월, 중공고급당교에서 공부한 이화림 여사(가운데)

1962년 리췌(李貞) 장군(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의 연변시찰 당시 동지들과의 기념촬영 모습. 이화림 여사(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당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위생국 부국장 재직







1964년 7월 13일, 캉커칭(康克清) 동지(가운데)의 연변시찰 당시 동지들과의 기념촬영 모습. 이화림 동지(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당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위생국 국장을 맡고 있었음



1983년, 이화림 여사가 다롄(大連)의 노년협회에서 활동할 당시 강연 모습



1986년 5월 6일, 이화림 여사는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아동문학상기금회에 1만2천 위안 기탁 사진은 제2회 화림신인문학상 수여식에 참가한 이화림 여사가 아동작품 작가에게 상을 수여



1987년, 이화림 여사는 기후가 좋고 풍경이 빼어난 다롄의 바이윈산장(白雲山莊) 공원 부근에서의 기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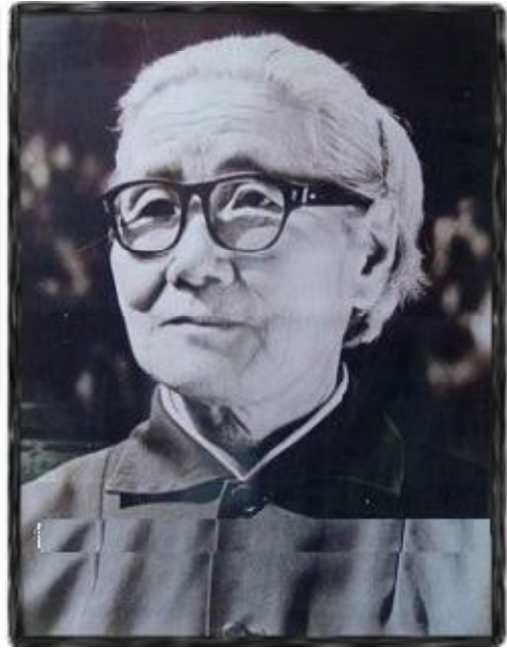
1994년 1월 6일, 다롄시 당정지도자와 사회 각 계인사들이 이화림 여사의 생신을 축하함



1993년 7월 1일, 근 9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독서하는 이화림 여사

"나의 마음은 희망으로 충만해 있다.  
나는 우리들의 국가가 번영하길 희망한다.  
나는 머지 않는 날에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길 희망한다.  
나는 미래가 찬란하길 희망한다.  
나는 미래가 더욱 아름답길 희망한다."

-<이화림 회고록>의 마지막 글 중에서-



출처: 구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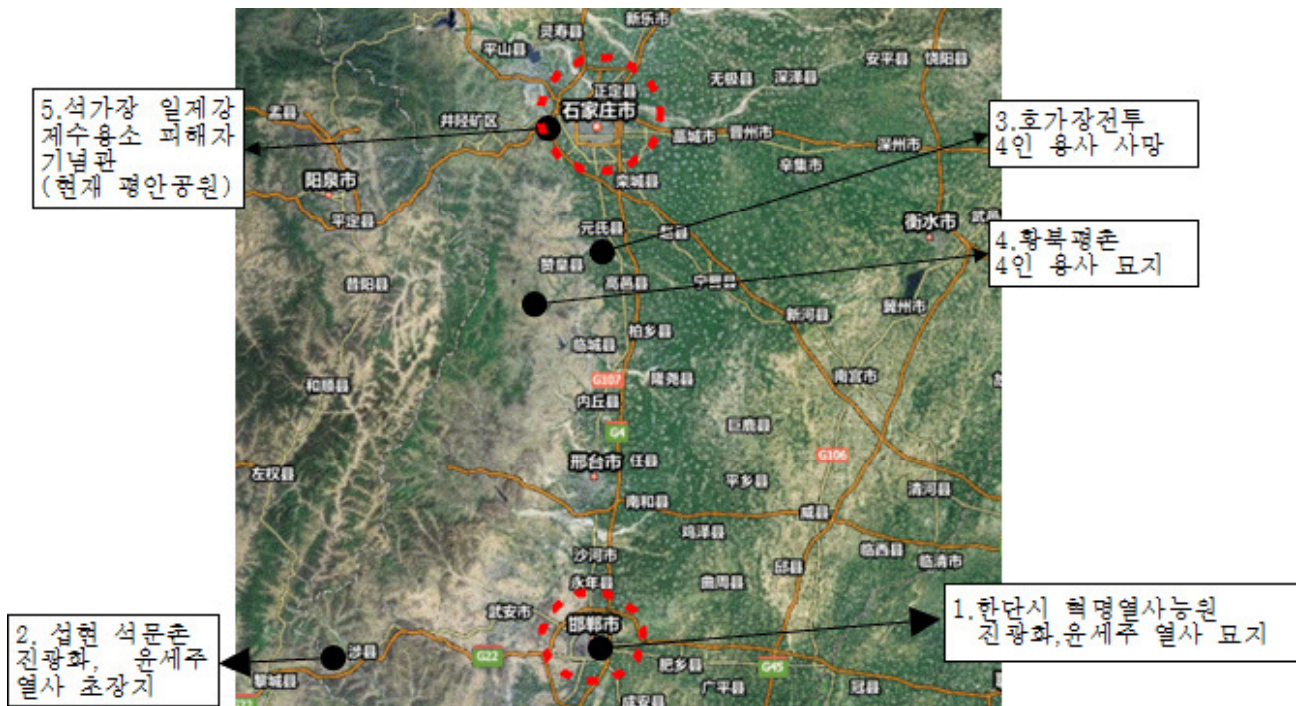


충남도에 제안합니다.





# 1. 항일 역사교류 추진: 충남도-하북성



하북성 내 항일유적지 위치

## 2. 여성독립운동기념관 설립



유관순 열사기념 공원(위) 기념관(아래)



출처: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3. 이념을 초월한 독립운동의 역사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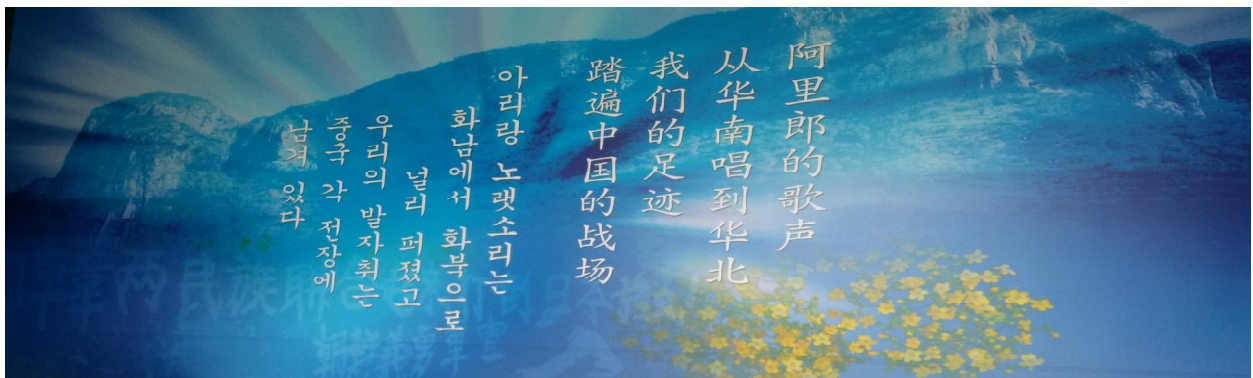
밀양 의열기념관 개관  
(2018.3.7. 연합뉴스)



출처: 위키백과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 항일운동 단체 소개

#### 조선의열단

**정의 :** 1919년 11월 김원봉 등 13인의 조선인이 만주 길림시에서 조직한 항일무력 독립운동단체

**창립 :** 192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며,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에 걸쳐 민족주의 급진파를 표방하는 단체로 변모되어 갔다. 1919년의 거족적인 3·1 독립운동을 겪은 뒤, 해외로 독립운동기지를 옮긴 애국지사들은 강력한 일제의 무력에 대항하여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독립운동단체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919년 11월 9일 밤, 만주 길림성 파호문(把虎門) 밖 중국인 반모(潘某)의 집에 모인 독립지사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숙의한 끝에 그 이튿날인 10일 새벽에 급진적 민족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항일비밀결사인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정의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한다” 고 한 데서 유래된 단체명만 보아도 이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연원 및 변천 :** 의열단 창단 당시의 단원은 대체로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중심이 되었고, 그 명단은 자료에 따라 한결같지 않으나, 김대지(金大池)·황상규(黃尙奎)가 고문으로서 지도하였고, 단원은 김원봉(金元鳳)·윤세주(尹世胄)·이성우(李成宇)·곽경(郭敬)·강세우(姜世宇)·이종암(李鍾岩)·한봉근(韓鳳根)·한봉인(韓鳳仁)·김상윤(金相潤)·신철휴(申喆休)·배동선(裴東宣)·서상락(徐相洛)·권준(權俊) 등 13명이며, 단장에는 김원봉이 선출되었다.

의열단의 지도이념 및 사상은 1923년 1월에 완성·발표한 <조선혁명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민중직접혁명과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당시 일부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노선이었던 문화주의·외교론·준비론 등 일제의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폭력적 민중혁명에 의한 일제의 타도라는 전술을 통하여 독립의 쟁취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의열단의 민중직접혁명노선과 전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당시의 시대사조를 반영하여 수정이 가해져, 창단 초에 비하면 강령상의 변질을 보게 되었다.

의열단이 본격적으로 급진좌파의 노선으로 가게 되는 것은, 1929년 12월 북경에서 조선공산당재건동맹을 조직하였을 때부터라고 하겠다. 의열단의 창단 초기에는 성문화된 강령은 없었으나, 특히 구축왜노(驅逐倭奴)·광복조국(光復祖國)·타파계급(打破階級)·평균지권(平均地權)을 단원들의 이상이며, 강령과 같이 여기고 있었다. 즉, “우리 동포가 광복운동을 시작한 이래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혹은 군대를 조직하고, 혹은 공산당과 제휴하고, 혹은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실책(實策)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무슨 얻은 바가 있었는가? 우리 단원이 노리는 곳은 동경(東京)·경성(京城)의 2개 소로서 우선 조선총독을 죽이기를 대대로 5, 6명에 미치게

되면 반드시 그 후계자가 되려는 자가 없게 될 것이고, 동경시민을 놀라게 함이 매년 2회에 달하면 한국독립문제는 반드시 그들 사이에서 제창되어 결국은 일본국민 스스로가 한국 통치를 포기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고 한 것만 보아도 민족적 지상과제인 독립의 쟁취를 위하여 오직 직접적 투쟁방법인 암살과 파괴라는 과격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순수한 민족독립운동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기능과 역할 :** 의열단은 창단 직후 ①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 ②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을 희생하기로 함. ③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됨 ④ 단의(團義)에 선(先)히 하고 단원의 의(義)에 급히 함을 기본규약으로 삼아 독립운동의 지침으로 채택하였다.

초기 의열단의 의거활동을 중심으로 그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밀양·진영 폭탄반입사건** : 일본 고관에 대한 암살과 중요관공서의 폭파를 목적으로 1920년 3월 의열단원 곽재기(郭在驥)가 만주 안동현(安東縣)에서 밀양으로 보낸 폭탄이 경기도 경찰부에 탐지되어 폭탄이 압수되고, 폭파계획의 행동책임을 맡은 관련자 곽재기는 8년형을 선고 받음
- ②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의거** : 제1차 암살파괴계획이 좌절된 지 얼마 안된 1920년 9월 14일, 이번에는 경상남도 부산경찰서가 의열 단원 박재혁(朴載赫)에 의하여 폭파되고 서장 등 3명이 즉사한 사건
- ③ **밀양경찰서 폭탄투척의거** : 1920년 12월 27일 오전 7시 30분경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의거가 일어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번에는 경상남도 밀양경찰서가 폭탄 세례를 입은 사건
- ④ **조선총독부 투탄의거** : 1921년 9월 12일 오전 10시경 서울 남산 밑에 있는 왜성대(倭城臺) 총독부청사 2층에 있는 회계과와 비서관에 각각 1개씩의 폭탄 투척
- ⑤ **상해황포탄의거**(上海黃浦灘義舉, 田中義一大將 저격의거) : 1922년 3월 28일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田中義一)가 기선편으로 상해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접하자 암살저격계획을 세움
- ⑥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및 삼판통(三坂通)·효제동 의거** :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
- ⑦ **제2차 암살파괴계획**(黃鉦·金始顯 등의 폭탄반입사건) : 1923년 초 의열단은 조선총독부 등 일제 관공서와 총독 사이토(齋藤實) 등 일제 고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파괴암살계획을 추진
- ⑧ **동경 니주바시 폭탄투척의거** : 1924년 1월 5일 동경 니주바시 사쿠라다몬(二重橋櫻田門)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
- ⑨ **동양척식회사 및 식산은행폭탄투척의거** : 1926년 12월 28일 하오 2시경 동양척식회사 및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 일어났다.

## 조선의용대(군)

**정의 :** 1938년 중국의 한커우[漢口]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

**설립 :** 1938년 김원봉(金元鳳)에 의해 창설되어 항일운동에 다대한 공적을 쌓았다. 1942년 봄 일부 대원이 한국광복군의 제1지대로 개편·흡수되었으며, 조선의용대의 주력은 1942년 7월 화북조선독립동맹(華北朝鮮獨立同盟)이 지도하는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으로 개편되었다. 식민지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동포를 규합하고 파시스트군벌의 압제 하에 있는 모든 민중을 연합하며, 일본군벌을 타도하여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연원 및 변천 :** 1938년 일본군이 난징[南京]을 함락한 뒤 우한삼진[武漢三鎮]을 공략목표로 삼아 쉬저우대회전[徐州大會戰]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7월에 청쯔현[成子縣]의 조선독립군이 후베이성[湖北省]·장령[江陵]으로 이동하여 훈련을 마친 뒤 한커우[漢口]로 들어왔다. 이때 일본군의 우한삼진의 함락이 눈앞에 다다랐으며, 중국군이 필사적으로 항전하였으나 패전하였다. 이에 중국 당국과 조선청년들이 협의하여 의용대를 구성하여 참전할 것을 선언하였다.

초창기의 병력은 20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1940년 2월에는 314명에 이르렀고,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한국광복군(이하, 광복군)이 창군되자, 이에 참가하는 자가 생기고 일부 이탈자가 발생하여 1941년 5월에는 81명으로 줄어들었다. 1942년 5월 제30차 국무회의에서 광복군에 부사령직의 증설에 따라 의용대 총대장 김원봉이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하고, 의용대는 5월 18일자로 광복군 제1지대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은 중국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이었고 박효삼·이익성(利益成, 제3구대 부구대장)·이지강(李志剛, 제2지구대 서기)·문정일(文正一, 제2구대 제3분대장)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1942년 7월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기능 및 역할 :** 최초의 편제는 2개의 구대(區隊)로 편성되었다. 제1구대는 대장 박효삼(朴孝三)이 지휘하여 후난[湖南]·장시[江西]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제2구대는 이익봉(李益鳳)의 지휘로 안후이[安徽]와 뤼양[洛陽]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본부는 처음에는 광시성[廣西省] 구이린수동문외[桂林水東門外] 동령가(東靈街) 1호에 있었으나 후일 충칭시[重慶市] 아관보(鵝官堡)로 옮겼다.

조선의용대는 많은 당원을 만주로 밀파하여 밀산현(密山縣)을 본거지로 동지를 규합하고, 일만군(日滿軍)의 후방을 교란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이를 위한 경비 및 교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국군 제1부대의 후방으로 진출하여 동대의 선전을 위한 중국군의 원조공작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조선의용대의 활동은 전투, 일본군정의 탐지 또는 점령지역내의 정보수집, 일본인 포로 취조 및 사상공작, 일본군대에 대한 선전공작, 중국군대 및 민중에 대한 선전공작, 적문서의 번역 등 다양하였다.

1941년 3월 초베이징·허베이성[河北省]·스먼[石門]·허난성[河南省]·장더[彰德]·칭다오[靑島]·상해·허베이성 충샹현[鍾祥縣] 등지에 무장정치공작대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 팔로군

**정의** : 1937~1945년에 일본군과 싸운 중국공산당의 주력부대 가운데 하나이고 정식명칭은 중국 국민혁명군 제8로군(國民革命軍第八路軍)이다.

**설립** : 1937년 제2차 국공합작 후에 중국 공산당 휘하 독립적 성향을 가진 부대로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설립되었고 신사군과 함께 화베이 지방에서 항일전의 최전선을 담당한 부대이다. 적극적인 항일전과 민심도모로 인해 중일 전쟁 기간에 중국 공산당에 큰 발전을 기여했다. 1947년에 제2차 국공합작이 국민당군의 선공으로 붕괴하면서 팔로군은 신사군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편입되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의 당군이며, 사실상 중화 인민 공화국의 정규군이다.

**연원 및 변천** :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인해전술에 따라 중국 각지에의 침투 공작을 적극적으로 행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공산당 세력은 풀뿌리적으로 증식하였고 중일 전쟁이 끝난 1945년 980,000명 정도의 게릴라 군을 모으게 된다.

그러나 1937년 7월에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후 8년 동안 중국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다. 당시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패망 위기에 처해 있던 중국공산당은 국민정부(國民政府) 군사위원회 위원장 장제스[蔣介石]에게 전문을 보내 전체 홍군은 장제스 위원장의 지휘하에서 국민혁명군으로 개명하여 항일전쟁에 임할 것을 표명했다. 7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공부국난선언(共赴國難宣言)’을 발표하고, 국민정부에 국공합작을 요구했다. 그들은 삼민주의(三民主義)의 실현, 국민당정권의 전복운동 및 적화운동의 취소, 폭력에 의한 지주들의 토지몰수정책 중지, 소비에트 정부 취소, 홍군 명칭 취소 및 국민혁명군으로의 개편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를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무기와 군사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국민당 정부군은 전쟁발발 직후부터 일본에 밀리기 시작하여 충청으로 임시수도를 옮기고 서부 산악지대를 근거로 지구전을 펼쳐야만 했다. 반면 일본은 동부해안지대에서 북경-서안-장사-계림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하고 중국군을 궤멸 직전까지 몰아갔다. 중국 국민당의 국민 혁명군과 중국 공산당 지휘 하에 있던 팔로군은 전쟁기간동안 일본에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했다.

1945년 8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이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로 진격하자 전세는 역전되었다. 일본이 패전 후, 국공 내전이 재개하면서 팔로군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만주의 할хин골 전투에서 승리한 소련군은 관동군의 장비를 접수하였고 이것을 그대로 팔로군에게 주었다. 또 일본군의 군인이나 민간인을 팔로군에 가세하는 것으로 군사 기술이나 전문 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 공군이 없었던 팔로군은 일본군의 항공 부대의 장교를 회유하여 항공대원 양성하였고, 포병 전술, 전략 측이 미비하여 기본적으로 체계화 된 일본군의 포병 전략을 베이스로 하였다. 또한 팔로군 내 조선인이 간호, 의사들 그리고 좌익 아나키스트 계열의 항일군이었던 조선의용대를 필두로 국공 내전의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다. 승리하고도 팔로군은 긴 세월을 걸쳐 징용했고 팔로군은 국민당군과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하여 1949년 10월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에 큰 역할을 완수했다.

**3대 기율 8항주의** : 중국 공산당 휘하의 팔로군에는 「3대 기율 8항주의」(三大紀律八項注意)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다. 이는 팔로군이 대중에게 지지를 받은 결정적 요인이 되었으며, 후에 한국전쟁 당시 중국에서 파견된 인민지원군에게도 나타났다. 이 규율을 어긴 팔로군은 중형을 받게 되었고 심하면 총살형에 처해졌다. 팔로군은 장개석 휘하의 국민혁명군과는 반대로 이 엄격한 군대 교조로 인해 게릴라 전으로 큰 전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말도 있다.

### 3대 기율

1. 모든 행동은 명령에 따라야한다
2. 인민의 바늘 하나, 실 한 오라기도 공짜로 취하지 않는다.
3. 모든 전리품은 공유하여야 한다.

### 8항주의

1. 병사를 구타하거나 욕하지 않고 불필요한 상명하복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2. 부녀자를 희롱하지 않는다.
3. 공평하게 사고판다.
4. 포로를 학대하지 않는다.
5. 말할 때는 온화하게 한다.
6. 빌린 것은 반드시 되돌려 준다.
7. 파손한 물건은 반드시 배상한다.
8.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







## 충청중국포럼 소개





‘충청중국포럼’의 목적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중국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럼’은 지방차원에서 대(對)중국교류와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편으론 충남도 및 각 시·군의 교류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충청중국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월례포럼 개최, 그리고 ‘중국 동향과 진단’,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등 중국 관련정보의 정기 발간과 온·오프라인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와 전략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충청중국포럼’ 추진현황

회차	일시	세미나 주제	강사
1회	2015.5.26	<충청중국포럼 출범식>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철강도시의 미래	강희정(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회	2015.6.25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시사점	김한수(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3회	2015.8.26	정진지 일체화 정책 추진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김부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4회	2015.9.14	한중3농포럼	
5회	2015.10.28	중국 신형도시화와 3농문제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한국의 기회	리홍보(중국쿤밍이공대학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박사)
6회	2015.11.25	지방의 대(對)중국 전략	한광수(금강대학교 총장)
7회	2016.1.27	역사적 관점에서 본 환황해권 문화자산 활용 방안 모색	이경복(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팀장)
8회	2016.2.2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민원 유형과 대응전략	양광식(광양자유무역청 투자유치팀장)
9회	2016.3.30	한중 FTA 발효와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	남수중(공주대학교 교수)
10회	2016.4.20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11회	2016.5.25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조현규(국방부 25사단 부사단장, 前주중한국대사 관/주대만한국대표부 무관)
12회	2016.6.29	충남관광 현황과 중국인관광객 유치전략	고두환(공정여행사 공감만세 대표)
13회	2016.8.31	일대일로를 둘러싼 중국 동북3성의 동향과 충남에의 시사점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14회	2016.9.28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박인성(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5회	2016.10.26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서동욱(특허청 과장, 前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16회	2016.11.30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 의 대응전략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장)
17회	2017.1.18	중국 주식시장의 추세와 전망	고정식(배재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18회	2017.2.22	교육과 해외인재유치를 통한 중국의 발전전략	구자역(서경대 인성교양대학 학장)
19회	2017.3.29	중국 농업과 농촌의 변화: 옌타이(烟台)·펑라이 (蓬萊)의 포도와 와인산업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20회	2017.4.25	대중국 지방외교의 과제와 전략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1회	2017.5.30	환황해권 지방외교 활성화 합동 워크숍	
22회	2017.6.29	2017년 충남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한중 FTA 현황 소개	조광옥(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장)
23회	2017.8.30	중국의 미래권력 전망	홍인표(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교수, 前경향신문 부국장)
24회	2017.9.25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발전: 중국 현대 농업정책의 해독	원테권(중국인민대학 농업과 농촌발전학원장/지속가능발전고등연구원장)
25회	2017.11.29	사드 이후의 중국문화산업 전망	이건웅(차이나하우스 대표)
26회	2017.12.13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세미나	
27회	2018.1.31	중국의 해양안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정원식(중국 북경대학교 박사)
28회	2018.2.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1: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29회	2018.3.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2: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30회	2018.4.25	지방자치단체 중국교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심장보(당진시 합덕읍 주무관, 전(前) 옥환시 파견공무원)
31회	2018.5.30	중국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박경철(충남연구원 중국팀장)
32회 (예정)	2018.6.27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	이정희(인천대학교 연구교수)

[illegible]



[illegible]